

국제신문

www.KOOKJE.co.kr

2005년 09월 01일

[출향인사 설문조사] 부산의 미래상 제언

부산의 미래상은 무엇일까.

출향인사 대부분은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가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낙후된 산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부산을 홍콩이나 시드니처럼 국제적인 관광·항만·물류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 각계에 포진한 출향인사 73명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 담긴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 비전을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과 문효남 대검 감찰 부장은 "항구도시 부산의 입지에 맞는 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유기준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도 10~2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미래도시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인은 "과거 부산시에서 발표한 대부분의 장기계획은 모두 선거용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최덕수 고려대 교수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의견이 아니라 370만 부산시민이 모두 합의하는 발전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우수인재를 영입하고 중앙정부의 재원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장항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은 한강과 청계천을 중심으로 도시를 정비해 도심 한복판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부산은 산강 바다 하천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순착 FK엔지니어링 회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은 모든 간부 공무원을 민간기업체에 연수시켜 행정 마인드를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여전히 군림하려고 하는 부산시 공무원들도 태도를 바꾸고 자기계발에 매진해야 도시에 활력이 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에 종속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비전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민수 전 제경부차관



강성훈 의원



문효남 대검 감찰부장



송상익 도원수산시장



성재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안광국 광주지법장



이만연 한양대 교수



유승준 EBS교수 회장



김대균 농협중앙회 회장



강성훈 의원



조성태 의원



조국 서울대 교수



조승초 농협중앙회 회장



김선원 세종대교수



한수부 서울대 교수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관련기사

- ▶ 응답자 부산고·서울대 출신 가장 많아
- ▶ 설문 응답자 명단 (가나다순)

#부산을 홍콩이나 시드니로

부산항이 중국 상하이를 넘어 아시아의 대표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부산이 국제적인 물류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일 해저터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영 서울대 교수도 "신항만의 규모에 걸맞게 부산·경남과 대구권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공항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항공물류시대에 대비하자는 것. 김 교수는 또 부산이 수준높은 서비스·레저산업을 육성해 공업도시인 울산·창원·양산에 제공하는 '원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우탁 APEX 회장은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현해탄 경제특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관광자원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전략기획팀장은 "호주 시드니는 고급 쇼핑물과 식당가가 밀집해 있고 관광시설도 풍부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부산도 부산항~자갈치~남포동~광복동을 관광의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어시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갈치시장을 복합수산쇼핑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 김인호(가야고 재경동창회장)씨와 원택 최갑림 부사장(동아고 재경동창회장)도 "항만 도시는 물류로 시작해 관광으로 완성된다"면서 "제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시드니와 같은 미항에 싱가포르와 같은 무역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규 건설교통부 복합도시기획단장은 부산만의 색깔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열린 시민의식과 다양성

개방적이면서 국제적인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주장이 많았다.

정경진 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장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의 지도층들이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른 도시 사람이나 외국인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정착될 때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부산에 정착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인섭 해양수산부 재정기획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 정당에 몰아주기식 투표를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앞당겨 지지 않는다는 현실론이다.

서울대 배광준 교수와 김문희 국회 문화관광위 수석전문위원도 "부산시민들의 의식이 서울에 비해 폐쇄적이다. 국제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이 세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특히 지역감정 극복과 정치적 다양성을 주문했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동서간의 균형개발로 부산의 단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정치적인 다양성을 포용할 때 부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분발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경제계 인사는 "부산출신 실력자와 부산발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하다. 불행히도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인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직 분간이 안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도심재개발과 고부가 산업도시

경제계 원로인 성재갑 전 LG석유화학 회장은 "낙후산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매진하라"고 충고했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과 주정중 삼성컨설팅 회장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대기업 또는 새 성장산업을 유치해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옛 도심의 재개발을 통해 동서균형발전을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배임태 행정자치부 거창사건처리단장은 슬럼화 양상을 띠고 있는 중·동·서·영도구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태수 국회통외통위 입법심의관도 "부산, 특히 해운대는 너무 난개발되고 있다. 항구도시의 아름다움이 없다"고 지적했다.

国際新聞 2005年9月1日

日韓海底トンネルは夢のプロジェクトか

目次

1. 誰がなぜ推進するのか
2. どこで掘るのか
3. 妥当性はあるか
4. 青函トンネルの今日
5. ユーロトンネルルポ
6. 掘るかどうか

〔釜山出身人士のアンケート〕釜山の未来像の提案

釜山の未来像は何か。

釜山出身の人士の大部分は、長期的なビジョンの不在が都市の乱開発を引き起こし成長の足を引っ張っていると指摘した。また立ち遅れた産業を潔く諦め、釜山を香港やシドニーのような国際的な観光、港湾、物流都市に育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助言した。社会の各界に布陣する釜山出身の人士73名の故郷への愛情が詰まった発展への意向を紹介する。

未来に備えた長期ビジョンを

ファン・チャンギョ サムソン電子社長とムン・ヒョナム最高警察庁監察部長は「港町釜山の立地に合った長期ビジョンを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口を揃えて言った。チョ・ソンレ ヨルリンウリ党議員とユ・キジュン、イ・ソンゴン ハンナラ党議員も10～20年先を見通した中長期的な未来都市計画がないと言った。

匿名を希望する経済人は「過去に釜山市が発表した大部分の長期計画は全て選挙用なものだけ」と酷評した。チェ・ドクス高麗大学教授は「一回きりの断片的な意見ではなく、370万の釜山市民の皆が合意できる発展モデルの樹立が必要である。それと同時に優秀人材を迎え入れ、中央政府の財源を積極的に誘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助言した。

ソウルをベンチマーキン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も多かった。チャン・ヒャンスク ヨルリンウリ党議員は「ソウルはハンガン（漢江）とチョンゲチョン（清溪川）を中心として都市を整備し、都心の真只中でも自然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いっぽう釜山は山、大河、海、小川を併せ持っているが、ど

れ一つとしてしっかり活用できておらず生活の質が落ちている」と指摘した。

チョン・スンチャク F Kエンジニアリング会長は「イ・ミョンバク ソウル市長は全ての幹部公務員を民間企業体に研修に送り、行政マインドを変えるよう努力している」といい、「相変わらず君臨しようとしている釜山市の公務員たちも態度を変え自己開発に邁進すれば、都市に活力が出る」と指摘した。一方、キム・ヨンチュン ヨルリンウリ党議員は「ソウルに従属しない独自のビジョンの確立が必要だ」と言った。

釜山を香港やシドニーに

釜山港が中国上海を越えアジアの代表港になるためにはインフラの構築が早急だ、という意見が多かった。

チョ・クク ソウル大学教授は「釜山が国際的な物流中心都市に成長するためには日韓海底トンネルの建設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キム・ジェヨン ソウル大学教授も「新港の規模につり合うように釜山・慶尚南道と大邱圏まで包括する実質的な国際空港の建設が必要だ」と言った。世界的に需要が急増している航空物流時代に備えようというものだ。キム教授はまた、釜山がハイレベルのサービス・レジャー産業を育成し、工業都市のウルサン（蔚山）、チャンウォン（昌原）、ヤンサン（梁山）に提供する“WIN-WIN 戦略”を駆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キ・ウタク APEX 会長は、釜山と日本の福岡が自由貿易協定（FTA）を結び「玄界灘の経済特区」を作ろうと提案した。

観光資源への全面的投資を求める声も高かった。パク・チェグク行政自治部、電子政府戦略企画チーム長は「オーストラリアのシドニーは高級ショッピングモールと食堂街が密接しており、観光施設も豊富で世界の人々から愛されている」と話し、釜山も釜山港～チャガルチ～ナンポドン（南浦洞）～クァンポクトン（光復洞）を観光街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氏は、特に魚市場のレベルに留まっているチャガルチ市場を複合水産ショッピング団地に育成する方を推進することを提案した。

医師であるキム・インホ氏（カヤ高、在京同窓会長）とチェ・カプリム ウィムテク副社長（トンア高、在京同窓会長）も「港湾都市は物流で始まり、観光で完成する」と話し「製造業への未練を捨てシドニーのような美港に、シンガポールのような貿易港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パク・サンギユ建設交通部、複合都市企画団長は釜山の特色がない、と残念がった。

開かれた市民意識と多様性

開放的かつ国際的な市民意識を求める主張が多かった。

チョン・キョンジン行政自治部公職倫理チーム長は「保守的な傾向が強いテグ（大邱）、慶尚北道の指導層が最近反省している」といい「他都市の人達や外国人に開かれた心で対する態度が定着したとき、国内外の企業と機関が釜山に定着しようとするだろう」と付け加えた。

カク・インソプ海洋水産部、財政企画官は「政治的偏向を克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特定の政党に集中して投票するからといって地域発展が早ま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現実論である。

ソウル大学のペ・カンジュン教授とキム・ムンヒ国会文化観光委員会の首席専門委員も「釜山市民らの意識はソウルに比べ閉鎖的だ。国際市民になるためには意識構造と行動様式が洗練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口を揃えた。

ヨルリンウリ党の議員たちは特に地域感情の克服と政治的多様性を求めた。
 チョ・キョンテ ヨルリンウリ党議員は「東西間の均衡開発で釜山の団結を導き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地域感情を克服し政治的な多様性を受け入れれば釜山はもっと発展する」と主張した。

ノ・ムヒョン（盧武鉉）大統領と地域出身の政治家たちの奮発を求める意見もあった。ある経済界の人士は「釜山出身の実力者と釜山の発展には何の関わりもないようだ。運悪くコードが合わないせいかもしれないが、ノ・ムヒョン大統領が故郷のために何をしたのかは未だ不明瞭」と厳しい忠告を投げかけた。

都心再開発と高付加産業都市

経済界の元老であるソン・チェガプ前 LG 石油化学会長は「後進産業を潔く諦め、高付加価値の産業に邁進しろ」と忠告した。

チョン・テグン農協中央会長とチュ・チョンジュン サムジョンコンサルティング会長は、雇用の創出効果が大きな大企業または新しい成長産業を誘致し、産業共同化の現象を食い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注文した。

旧都心の再開発を通して東西の均衡発展を解決しようという意見もあった。
 ペ・イムテ行政自治部巨創事件処理団長は、スラム化している中・東・西・ヨンド区の再開発が必要だと話した。ホ・テス国会統一外交通商委員会の立法審議官も「釜山、特にヘウンデ（海雲台）はひどく乱開発されている。港町の美しさが無い」と指摘した。